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31차회의 2019년 11월 25일~12월 4일 진행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31차회의가 2019년 11월 25일 ~ 12월 4일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70여개 성원국과 40여개 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총서기는 25일에 있던 개막연설에서 지난 2년간 국제해사기구가 기구전략방향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27일에 있던 대표단 단장연설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은 다음과 같다.

《의장선생,

총서기선생,

대표여러분,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의 이름으로 노마렘바 람보선생이 국제해사기구총회 제31차회의 의장으로 선거된것을 축하하며 선생의 능숙한 사회밑에 회의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의 성과적주최를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인 국제해사기구 총서기선생과 기구 서기국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해사기구가 총화기간 전세계적인 해운규제기관으로서의 지도적역할을 계속 높이는것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의무화된 기구성원국점열제도가 성원국들사이의 호혜의 제도로서 편향없이 시행되어 해사행정사업과 규제의 효과성보장에 관한 기구의 전략방향 6의 시행에 이바지하였으며 해운업의 온실가스방출량을 2050년까지 50%로 줄이기 위한 초기전략이 채택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지속개발목표 달성에도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유엔지속개발협조틀저리에 매개 나라들의 해사기술협조수요를 포함시키기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기울인 노력은 세계해사발전에서 기구가 늘고있는 주도적역할에 대한 쟁점으로 됩니다.

의장선생,

우리 공화국정부는 나라들간의 지속적인 해운업발전을 위한 이상적이며 공정한 협력틀저리를 마련한 기구의 역할을 언제나 평가하고 지지하여 왔습니다.

지난 총화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2020년에 받게 될 기구성원국점열에 대한 준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라의 해사기준들과 기구의 해사기준들사이의 보다 조화로운 일치성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나는 우리 나라에 대한 기술협력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준 기구총서기선생을 비롯한 기구 성원들에게 우리 공화국정부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바입니다.

의장선생,

통신과 련결로 특징지어지는 새 세대 산업발전의 흐름에 맞게 해사 분야에서 성원국들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것이 그 어느때보다 더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오늘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들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국가적 및 세계적해사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있습니다.

기구 총서기선생과 국제이동위성기구 총국장선생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시기 우리 나라에 대한 배장저리식별추적체계를 위한 통신봉사중단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여 우리 배들과 선원들의 항해와 안전이 위협당하고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평등과 호혜로 세계해사발전을 주도하여 온 기구의 영향을 흐리게 하고 해사분야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유엔의 정신에도 배치되는 이러한 행위들이 국제무대에서 더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최단기간내에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기구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세계해운업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에서는 기구 이사회 성원국들을 선거하고 다음기 기구전략을 채택하는 등 해상안전과 해상환경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안전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